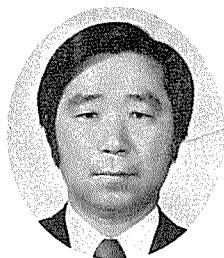


## 모두에게 건강을



이 순 형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강산은 십년이 아니라 1년만에 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늘 다니던 곳도 얼마있다 다시 가보면 생소할 정도로 풍경이 바뀌었음을 어렵지 않게 경험한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생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새없이 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무서운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의 늘어나고, 외채를 걱정하던 신세에서 외환고(外換高)의 두통을 앓게 되는가 하면 원화절상에 따른 희비가 만발이다. 또 작년과 금년에 겪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변혁은 마치 상전(桑田)이碧海(碧海)가 되듯이, 한나라의 통치권자가 유랑객이 되는가 하면 정치인이 선량으로 탈바꿈하는 등의 현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창으로 바깥을 내다 보았을때처럼 어지럽기도 하고 남가일몰을 꾸고 난 것처럼 어떨떨하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이런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병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강을 잘 보전해 나갈 때 급변하는 사회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로장수라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들지 않더라도 건강을 지키는 생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건강관리는 정확한 과학적 지식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건강을 지킨답시고 미신적, 무속적, 그리고 사이비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비과학적 엉터리 처방이 난무하고 이에 휩쓸릴 가능성도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때 일수록 과학을 믿는 마음이 투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로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건강을 잃은 다음 치료에 의해 재활되기 보다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 상책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예컨대 간흡충 특효약이 개발되었다 하여 민물고기 회를 마음껏 먹은후 간흡충증에 걸려 고생을 하기보다는 민물고기를 잘 익혀먹는 일이 득이 된다는 사실을 터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세계건강기구의 건강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건강이란 다만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한 사회적 안녕상태」라 하였듯이, 우리 사회의 안정을 이룩하여 그 사회에 소속된 개개인이 그안에서 안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과거와는 달리, 사람이 병에 걸려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 그 당사자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나 국가에 책임이 있는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개인보다는 사회나 국가에서 맡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개인의 노력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 나아가 국민적 합의와 공동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러 선진국에서 국가예산의 대부분이 보건과 후생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무진년 한해도 저물어 간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올림픽을 비롯하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보다 많은 경험을 얻었다. 정치구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서있음을 여러가지 계수가 입증하여 주고 있다. 다가오는 기사년 새해에도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우리는 대단한 변혁을 겪게 될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새해를 맞는 소망을 말하자면 우리 국가예산의 대부분이 보건과 원후에 경주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명량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고 숙원인 민주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으리요.

〈필자=서울의대교수〉